

# 움직이는 친문, '검수완박' 재시동 거나

### 검개특위 TF 회동... '민생 우선' 송영길 대표와 마찰 소지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들이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조짐이다.

5·2 전당대회로 구성된 새 지도부가 백신과 부동산 등 민생 이슈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가 드디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모양새다.

친문 강경파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개혁과 민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종의 노선 투쟁을 벌이는 수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강성 검찰개혁파인 '처럼회' 소속이 여럿 포진한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안전분리TF 의원들은 10일 오전 의회회관에서 회동했다. TF팀장인 박주인 의원을 비롯해 이번 전대에서 최고 득표로 지도부에 입성한 김용민 최고위원, 강남국 황운하 의원 등 대부분이 검찰개혁 추진파다.

민생과 개혁의 '병행'을 강조하며 검찰개혁특위를 재가동하고 검수완박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이 회동 후 지도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할 가능성을 포함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강경파 친문이자 전임 법사위원장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이끌었던 윤호중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중수청 설치법안의 임기 내 추진 여부에 대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선 분명히 추진하되, 새 지도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과 반도체 특위 등이 개편 중이고 순차적으로 검찰, 언론개혁 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은 이전 특위의 논의 성과가 많아 그걸 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 나아가 현 지도부의

민생 우선 기조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검찰개혁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용의 불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백신과 부동산 등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꺼내진 않을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임·박·노 거취 청와대에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등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송 대표가 그 이후 지도부회의를 거쳐 우리 쪽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해당 상임위의 의견까지 듣고 오늘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18묘비 닦는 국힘 초선의원들 1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참배한 뒤 묘비를 닦고 있다. 참배에는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의원과 김재섭, 천하람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국민의힘 '서진전략' ... 호남 구애 나섰나

### 지도부·초선의원·잠룡 광주 방문 영남 지역 정서 탈피 외연 확장 총력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심상치 않다. 원내 지도부에 이어 초선 의원, 대권 잠룡들까지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4·7일 재보궐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호남을 포함한 지역적 외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수정당을 탈피해 중도 표심을 끌어안는 것은 물론, 영남이라는 지역적 정서를 벗어나 '서진 전략'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분석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당 초선의원들이 이날 3일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다. 초선의원 등 11명은 이날 오전 광주로 내려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진정성을 더하기 위해 묘역 내 환경정화 활동도 벌였다. 이들은 참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정당의 계보를 잇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전씨를 직접 언급하며 사죄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대표 발언을 통해 "저희들은 대학 다니던 1980년도 중반부터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진상규명이 안됐다든 점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오후에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 246 등을 둘러봤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외신기자로 현장을 취재했던 노먼 소프의 사진들을 관람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는 17일 광주를 방문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메시지가 주목된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는 다음주에도 국민의힘 김기현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다시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수사

### '2021년 공제 1호' 부여 '강제수사 여부 못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

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 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개호 "5·18 발표책임자 전두환임을 밝혀 역사 앞 단죄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당양평영평광장성) 국회의원들은 10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을 강하게 규탄하고 5·18민주화운동 발표 책임자였음을 끝까지 밝혀 법과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논평을 통해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험기 사적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

했다.

또 "전두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려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법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받는 것 뿐"이라면서 "우리는 어떠한 폄수와 회피, 방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발표 책임자가 전두환이었음을 밝혀내어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음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나주 요양병원

### 「급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침대 수 : 200침대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